

WEF Monthly Report

2025 년 4 월 2 일, WEF 4 차산업혁명센터, 경기도 대한민국
센터 웹사이트 : koreago.net

2025년 3월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트렌드 리포트

* 본 자료는 3월 한 달 동안 세계경제포럼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문 기사들 중 주요 기사를 선별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1.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세계경제포럼, 파리에 '유럽 인공지능 전문 센터' 설립

세계경제포럼(WEF)은 비바테크(VivaTech)와 협력해 파리에 '유럽 인공지능 전문 센터(CAIE)'를 설립하여, 프랑스의 연구 생태계와 기술 투자 환경을 기반으로 AI 혁신과 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AI 에이전트, 중소기업 글로벌 무역의 판도를 바꾸다

산업별로 특화된 AI 에이전트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무역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 통신업계의 생존 전략은?

생성형 AI는 통신업계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사이버 보안 강화에 기여하며, 생존을 넘어 기술 중심 통신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CFO들이 말하는 'AI가 바꾸는 금융의 미래'

AI는 CFO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동반하는 전략적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AI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회와 도전 과제

AI가 넘지 말아야 할 '행동 금지선'을 정하고, 사전 설계와 사후 규제를 통해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자 혁신이 다가온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기회들

양자 기술은 에너지, 의료, 통신 등 주요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은 인재 육성, 전략적 투자, 생태계 협력을 통해 '양자 시대'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양자컴퓨팅, 에너지 산업의 예측력을 재편한다

양자 컴퓨팅이 전력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양자 기술을 이용하면 전력망의 운용을 최적화 할 수 있어 시스템의 효율성과 위기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다보스 2025에서 살펴본 미래 성장의 6가지 핵심 포인트

세계경제포럼 2025 다보스 연차총회에서는 '성장'의 질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기술, 교육과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전한 재정, 글로벌 협력을 통해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관세가 바뀌놓은 세계 무역의 판도...주요 경제 이슈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독일 총선 이후 변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 중심' 경제학,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중산층의 위축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중산층 중심'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무역 재편 속, 기회를 포착한 도시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의 신흥 도시들이 인프라·인재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중동 지역의 디지털 결제가 급증한 배경

중동이 젊은 인구, 모바일 확산, 정부 투자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결제 혁신을 이끄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 '에코존', 탄소중립 전환의 열쇠 될까

서아프리카의 단일통화 '에코'가 외환비용 절감과 무역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의 넷제로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3. 기후 대응(Climate Action)



해운업 탈탄소화의 게임체인저, e-메탄올이 온다

E-메탄올은 해운 및 화학 산업 등의 탈탄소화에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높은 생산 비용이 단점으로 꼽힌다. E-메탄올의 대중화에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항공 탈탄소화에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지속가능항공연료(SAF)의 대규모 도입은 항공 산업 탈탄소화의 핵심요소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간 부문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 다음 수준은?

EU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대 3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형평성, 다양성, 포용(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여성 건강 격차 해소가 가져올 연간 4,000억 달러의 경제 효과

여성 건강 격차 해소는 삶의 질 향상과 연간 4,0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며, 이를 위해 데이터·연구·의료·투자·정책 전반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면 세계 GDP를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힘을 합쳐 보육 지원, 유연 근무, 성평등 문화 조성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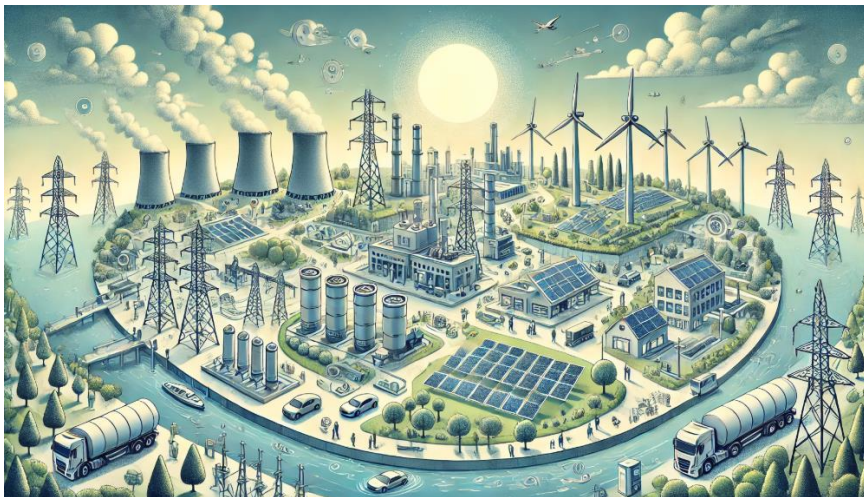
AI는 STEM 분야의 성별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까?

AI 혁신은 성별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재교육을 통해 기술 분야의 여성 인재 풀을 늘릴 경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과제와 해법

생성형 AI 확산과 콘텐츠 검열 완화 움직임 속에서 2025년은 디지털 안전을 위한 글로벌 규제, 기술, 문화적 대응이 절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2025년 에너지 산업을 변화시킬 5가지 트렌드

2025년은 에너지·자원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 유럽 기업들의 움직임, 전력 수요 증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에너지 솔루션 투자, 일자리·성장·공급안보가 이끈다

각국 정부는 에너지 기술의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넷제로 목표 달성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 시추 확대 정책... 에너지 전문가의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규제 완화와 시추 확대를 지시했지만 시장 요인과 법적 도전으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 식량과 수자원(Food and Water)



다자 협력을 통한 수자원 확보 전략

수자원 관리가 전 지구적 리스크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구조화된 거버넌스와 투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후 대응의 열쇠, 수자원 투자 확대가 필요한 이유

수자원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와 협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7.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위성 기술이 바꾸는 도로 안전의 미래

AI와 위성 기술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확산: 탄소중립, 자연 회복, 포용적 미래를 위한 4단계 전략

스타트업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촉진한다. 이들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다.

8. 건강과 의료 시스템(Health and Healthcare System)



건강 형평성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중요한 이유

누구나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편적 건강의 달성은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디지털 헬스 도구, 저소득국 건강 격차 해소할까?

비전염성 질환은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망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보건 위기에 처한 국가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치료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수명에서 건강 수명으로, 유아기 시절 영양 상태가 장수의 열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healthspan)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첨단 생명과학 기술보다, 영유아 시기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령 사회의 해법, '장수 경제'를 위한 6대 원칙

정부·기업·시민사회는 경제력 회복력 확보, 금융 형평성 보장, 건강한 노화 달성, 평생 일자리 확보,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불평등 해소 등 6대 원칙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장수 경제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고령 인구,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힘

고령층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지속적인 노동 참여를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이 필요하다.

끝.